

보도시점

2024. 2. 8.(목) 08:30

배포

2024. 2. 8.(목) 08:30

국민권익위 국민콜110,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

- 병원·약국·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, 행정기관 민원 및 불법 주·정차 단속 신고 등 상담

- 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·약국 정보,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.

-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,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·정체 구간,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.

또 불법 주·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,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, 전기·수도 고장,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.

< 국민콜 ☎110 상담 가능 사례 >

-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
- 도로별,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
- 정부24 및 위택스 납부 관련 문의
- 불법 주·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
- 유기 및 유실 동물보호 관련 문의
-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문의
- *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

-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▲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‘국민톡110’ 상담 ▲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(m.110.go.kr) 문자상담 ▲청각·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·온라인 채팅(www.110.go.kr) ▲누리 소통망(트위터: @110callcenter, 페이스북: 110call)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.
- 국민권익위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“국민콜110은 매년 약 26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	책임자	110콜센터장	김용호 (02-2110-6500)
		담당자	주무관	김시영 (02-2110-6503)

